

# 세계사관

WEEKLY

no.02



Save  
Our Sura

세계사관  
행진





## 2주차 행진 경로

**8.23 토** +56회 팽팡문화제+ @군산 하제마을 팽나무 앞



**8.22 금** **쉬의 날**  
우금티전적지-금암삼거리(세종시)(13km)

우금티전적지 - 충남역사박물관 - 월송교차로 - 석장리박물관 (점심) - 금암삼거리



**8.21 목** **흰발농계의 날**  
탄천면 행정복지센터-우금티전적지(15km)

탄천면 행정복지센터 - 달산 현대오일뱅크주유소 - 달산교 - 이인농협주유소 - 태봉한식뷔페 (점심) - 우금티전적지



**8.20 수** **똥똥마디의 날**  
부여여중-탄천면 행정복지센터(13.6km)

부여여중 - 정동2교차로 - 백제보전망대 - 서원마을 버스정류장 - 분강교차로 (점심) - 탄천면 행정복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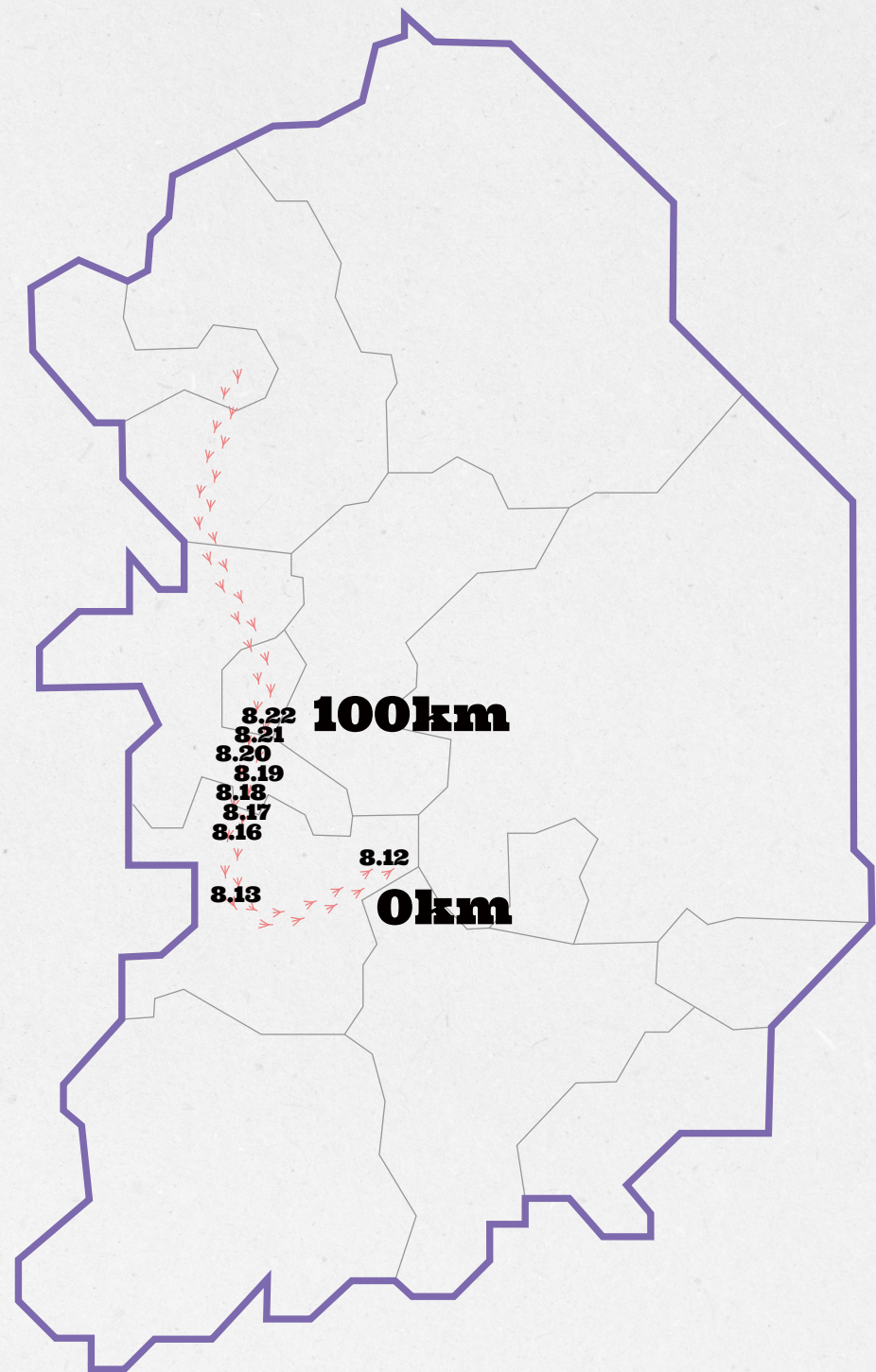
**8.19 화** **황새의 날**  
포롱관-부여군청(10.3km)

포롱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수북정 (점심) - 부여군청



**8.18 월** **백합의 날**  
가로공원-포롱관(10.8km)

가로공원 - 남촌사거리 - 송정교차로 (점심) - 구룡복합문화센터포롱관



CONTENTS

8 들어가는 글 \_ 박영길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2 - 낙관

12 일곱째별의 새,사람행진 2  
존재만으로 든든한 새,사람

250818 백합의 날

42 수라의 외침 \_ 딸기  
44 함께해요<새,사람> \_ 새만금신공항백지화 세,거점  
46 새,사람행진기 2 \_ 알알이 큰뒷부리집사의 하루

250819 황새의 날

64 수라의 외침 \_ 딸기  
66 수라를 위한 에세이 \_ 김선경 내 인생 처음 맨발의 친구를 만난 날  
68 행진노래 도요새 / 난 바다야

250820 통통마디의 날

76 수라의 외침 \_ 딸기  
78 함께해요<새,사람> \_ 문정현 신부님 생일축하! <새깃, 새깃>

250821 흰발농계의 날

88 수라의 외침 \_ 딸기  
90 고병권의 묵묵 \_ 새만금, 아니 억만금의 공항이 들어선대도  
94 오마이뉴스기사 \_ 조혜진 새와 사람, 함께 살자

250822 샹의 날

102 수라의 외침 \_ 딸기  
106 특별기고 \_ 정선원 동학교도들은 지나가는 길에 풀 한 포기 밟지 않았고,  
별레 한 마리 죽이지 않았다  
114 REFLECTION\_ Tony 15 Million Steps



참가신청



참가자안내



텔레그램채널



## 나에게 던지는 질문들 2 - 낙관

새, 사람 행진단이 전주 전북지방법원청에서 출발하여 서울행정법원을 목적지로 매일 길을 걷는 동안 문정현 신부님은 길거리에서 서각을 하신다. 뜨거운 도로변 작은 나무 그늘이라도 찾아 자리를 잡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때로는 뜨거운 햇살 아래서 서각을 하시며 행진에 동참하고 계시다. 어쩌다 보니 신부님과 동행이 내 역할이 되었다. 도로변에 책상을 펴고, 서각 도구들을 늘어놓고는 금세 나무판을 파는 일에 집중하신다.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 주신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투쟁현장에 연대하다 보면 한국사회가 끔찍하게 망가진 상황을 보며 암울함에 빠지곤 한다. 그럴 때마다 되새기는 신부님 말씀이 있다. 3년 전 봄바람 순례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이다.

“뿔박받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권리를 찾고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이건 뭐 기필코 일어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힘겹지만 한걸음 한걸음 가는데, 비록 내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필코 이루어질 일이다. 내 죽은 다음에, 내 생 이후에도 기필코 이루어질 일이다. 그러니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끝내고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서는 모습이 나에게 오래도록 남아있다. 세상은 차차 암울해진다고 생각하니 앞으로 세상은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회의감만 든다. 이럴 때마다 더더욱 떠올리게 되는 건 신부님의 낙관주의다. 내가 겪어온 세상보다도 훨씬 참혹한 세상을 살아 오시면서도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는 노력을 놓치지 않으시던 분이 여전히 이렇게나 긍정적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언제나 존경스럽다.

내가 활동하는 것이 힘에 부칠 때마다 절대 놓치지 않고 움켜잡는 말이 있다.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그람시가 한 말이라고 한다. 적어도 활동가라면 이성적으로는 비판적인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정서적으로는 현실이 비판적일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는 말이다. 아마도 이 문장을 가장 잘 실천하는 삶이 문정현 신부님의 삶이 아닐까.

그람시가 평생 연구의 주제로 삼은 것은 ‘왜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이 자신들의 이익과 전혀 무관한 파시스트 독재를 더 지지하는가’ 였다고 한다. 그는 이 의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오랜 세월 숙고한 끝에 찾은 답은 대중의 ‘무관심’이다. 역사와 세계에 대한 무관심, 정치와 경제에 대한 무관심, 지금의 삶과 미래에 대한 무관심이 개인적 욕망에 가득찬 독재자와 그에 순응하는 말 없는 민중을 탄생시킨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람시에게 무관심이란 것은 무기력이고 기생적인 것이며 비겁함일 뿐 진정 살아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오랫동안 역사 안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며 그 발전을 막은 것이라고 본다. 무관심한 사람은 무책임하며 언제나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런 불평불만을 고치려하지 않고 어느 순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고 만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무관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다. 그런 사회나 생명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일정 정도 미래를 포기하고 과거 속으로 침잠하는 것이 아닐까?

그람시가 늘 외친 말이 있다.

“나는 무관심을 미워한다.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어느 한 쪽 편을 든다는 것이다.”

의지로 낙관하기 위해서는 비록 현실은 비판적이더라도 의식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믿고 변화를 긍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결국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길을 나서며, 죽음이 아닌 생명을, 단절이 아닌 연결을, 나아가 생명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나서서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일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적어도 동지가 고립되지 않도록 함께 걸으며 큰 소리로 우리 편이 이길 수 있다고 떠들며 살아야 하는 게 아닐까 싶다.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 존재만으로 든든한 새,사람

### 20250816 토요일 가창오리의 날 금강호 휴게소~서천갯벌 11.2km (누적거리 23.2km)

금강호 휴게소 - 금강갑문교 - 김인전공원주차장1 (2.3km) - 벨리하우스 (2.6km) - 동백대교 아래 (1.9km / 점심) - 한솔제지 맞은편 주차장 (3km)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1.4km) - 서천갯벌

#### 가창오리는 죄가 없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이 희생되었다. 항공기와 조류충돌이 원인이었다. 그때 충돌한 조류가 가창오리였다. 그러나 가창오리는 죄가 없다.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지은 사람에게 죄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610배에서 650배까지 높은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겠다고 한다. 한국민간항공조종사협회에서도 조류서식지 인근에 공항을 짓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안전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런데 무언에 눈이 멀었는지 정부와 토건세력과 그 배후가 사고 발생 위험 예상지에 공항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 만행을 막으려고 우리는 전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걸고 있다. 2025년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선고일에 맞춰 한 달 전인 8월 12일에 출발했다.



그 세 번째 행진일인 8월 16일, 금강호 휴게소에 이른 아침 8시부터 100여 명이 모였다. 전국에서 모인 중에는 전날 서울에서 내려와 근처에서 숙박까지 하면서 기다린 세종호텔 해고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명숙과 말벌 동지도 있었다. 의료지원팀 양선호 원장의 쌍화탕과 식염포도당이 나누어졌다.

금강은 서천과 군산을 나눈다. 그 둘을 이어주는 금강감문교를 지나는 2km. 새사람 행진의 위용은 당당했다. 바다로 흘러가는 금강물처럼. 일 년 넘게 철거를 위해 농성하고 있는 천막 덕분에 세종보는 닫히지 않았고 공주보 역시 개방하고 있는 금강은 바다로 막힘 없이 흘러 들어간다. 새만금 방조제로 막혀있는 만경강과 동진강이 보기에 얼마나 부러운 강인가.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을 위해 작년 7월 22일부터 일 년 넘게 월요 미사를 드렸다. 지금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땀방아 아래 견고 있다. 잘못된 정책 때문에 못생명이 30년 넘게 고생하고 있는데 또 위험천만한 악수(惡手)를 두겠다는 정치권과 결탁하는 토건세력. 짓고 보수하고 보수고의 연속. 파괴와 몰살을 일삼는 그들의 개발경제는 특정 부류를 위한 검은 악순환의 연속일 뿐이다.

가뿐하게 다리를 건너 주차장에서 잠시 쉬고 강을 왼쪽에 보며 그 옆을 걸었다. 답사 때 폐업한 줄 알았던 가게는 영업 중이었고 쇠락한 강변 풍경은 갑작스러운 사람들의 발걸음에 생기를 띠었다.

더덕과 오이와 함께했던 1차 답사 때는 발견하지 못했는데 더덕과 딸기가 2차 답사 때 발견한 동백대교 아래는 점심식사와 휴식하기에 딱 좋은 장소였다. 문정현 신부님은 그곳에 미리 오셔서 우리가 걷는 동안 서각을 하고 계셨다. 삶은 옥수수과 김밥을 먹고 누워서 쉬려니 인간 가창오리떼가 날갯짓을 했다. 그리고 판소리 한마당이 이어졌다.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판결을 미리 그린 극이었다.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날이 무척 더웠다. 서천장항미곡창고를 지나 옛 장항제련소가 저만치 보였다. 대형트럭이 뽕뽕 다니는 한솔제지 맞은편 공원에서 잠시 쉬는데 와사비 스튜디오에서 한낮의 무더위를 식힐 아이스바를 사다 나눠주었다. 아이스바 개수로 출발 당시 100여 명이 식사 후 80여 명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런데도 광주에서 올라온 평화행진단 어린이들은 끝까지 걸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지나 서천갯벌로 들어갔다. 장항승림휴양림으로 이름이 난 그곳엔 얼마 전까지 없던 보랏빛 맥문동이 막 피어나고 있었다. 주말이라 그런지



©일곱째별



©일곱째별



©일곱째별

관광객도 많고 가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한편에서 서천군민 활동가와 오동필 시민생태조사단장이 설명을 했다. 군산에서 대체 서식지로 주장하고 있는 서천 갯벌 유부도에 철새 개체수가 늘고 있는지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8천 년 갯벌 역사를 가진 군산은 새만금을 짓고 생태적으로 망조가 들고 있는데 금강 건너 서천은 갯벌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덕분이다. 하지만 새만금 신공항이 들어서면 서천 갯벌의 새도 줄어들 것이다. 생태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 20250817 일요일 검은머리물떼새의 날 서천역~ 서천군지원보건진료소 12.7km (누적거리 35.9km)

서천역 - 현대오일뱅크주유소 (1km) - 문장3리마을회관 (2.7km) - 문산사거리 (3.7km / 점심) - 서천군지원보건진료소 (2.6km)



©일곱째별

서천군의 시민의식 수준은 매우 높았다. 전날 함께 행진한 군민도 그랬지만, 경찰의 협조도 상당히 양호했다. 출발지인 서천역에서부터 종착지인 보건진료소까지 행진단 앞뒤에서 경찰차로 엄호하고 직접 선두 앞에서 미리 모퉁이를 확인하며 걷는 경찰도 있었다. 대로는 물론 1차선 도로를 행진할 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였다.

태월리를 지나는데 검은머리물떼새 두 마리가 동네 간판에 앉아있었다. 유네스코 등재 지역이라 마을의 상징을 새로 삼은 모양이다. 마침 검은머리물떼새의 날이었다.

첫 번 휴식지인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행진 소식을 들은 동네 친구가 나와 있었다. 나는 그날따라 급속히 소진되는 카메라 배터리 충전을 부탁했고, 그가 서천역에 갔을 때 내 카메라 가방은 자동차가 아닌 서천역 벤치 위에 두 시간째 그대로 있었다(고 한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행진단 스트레칭 체조를 담당하는 바람에 가방 챙길 정신이 없었던 것이었다. 서천군민의 양심적인 의식 수준 덕분에 천만다행이었다.

신부님이 서각하며 기다리고 계신 문장 3리 지나 문산사거리 커다란 나무 아래에 도착해서 대전 데모자매가 준비해 온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식혔다. 그리고 화은엄마 도로테아가 전주에서 새벽부터 싸서 보내준 김밥을 먹고 판화를 찍으며 여유 있는 점심시간을 보냈다.

리건(김나희 홍보국장)이 이날 가족과 김권희 님과 함께 의료지원팀으로 동행해서 수시로 식염포도당을 나눠주었다. 의료물품 상자에는 수제 모기퇴치제도 있었는데 땀에 전 몸에 달려드는 곤충을 퇴치하기 위해 향수 대신 뿌리기에 썩 좋았다.

서천군지원보건진료소에서 마무리하며 간단한 소감을 들었다. 보령에서 온 어린이 포함 가족과 서천군민이 함께한 일요일이었다.



## 20250818 월요일 백합의 날 가로공원~구룡복합문화센터포롱관 12km (누적거리 47.9km)

가로공원 - 홍산천주교회 (4km) - 송정교차로 (4.7km / 점심) -  
구룡복합문화센터포롱관 (3.3km)

서천군 문산면 은곡리 길이 협소해 행진에 위험하다는 경찰의 염려를 받아들여 부여군 옥산면 가로공원에서 모였다. 일찌감치 간식과 물을 챙겨온 영길 샘은 캠핑 의자 몇 개를 퍼 놓고 독서 중이었다.

평일 월요일이라 조출하게 열한 명이 출발했다. 부여 경찰도 서천 못지않게 행진단을 안전하게 인도해주었다. 홍산성당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이날은 중간에 주유소도 공원도 없는 데다 퇴약별 아래 4번 국도를 걷는 난코스였다. 특히 점심식사는 송정교차로 허허벌판에서 해야 했다. 그 열악한 곳에서도 문정현 신부님은 서각을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셨다. 덩굴 그늘에 의지해 김밥을 먹다가 출발지로 가서 차량을 가져왔다. 신부님 보좌나 간식과 점심밥 제공, 차량 이동 등 행진단이 행진할 때 전후로 보이지 않는 많은 수고를 영길 샘이 담당하고 있었다.



함께 걷는 이들 중 구릿빛 오른팔에 '구름비야 일어나라' 문신이 눈에 들어왔다. 16년 동안 제주 강정마을에서 활동가들에게 밥을 해 주신 삼촌이었다. 해군기지에 빼앗긴 강정 구름비에 얼마나 한이 서렸으면 팔뚝에 문신을 다 하셨을까. 그 울분이 전해지는 듯했다. 삼촌이 비행기 타고 온 제주도도 몇 년째 제2공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좁은 국토에 10개의 신공항을 짓겠다는 나라.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시대에 있는 비행장도 문 닫는 판에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마음은 복잡해도 발걸음은 축지법 쓰듯 빨라 네 시간 만에 구룡복합문화센터에 도착했다. 식후 세 명이 더 늘어 14명이 되어 있었다. 그때 막 어린이와 엄마가 왔다. 다음 세대가 있는 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생명을, 사랑을.

## 20250819 화요일 황새의 날 포룡관~부여군청 10.3km (누적거리 58.2km)

**포룡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3.2km) -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3.3km) - 수북정 (2km / 점심) - 부여군청 (1.8km) 10.3km**

구룡복합문화센터에서 출발 전 화장실과 체육시설 정수기를 이용하며 실내의 주민에게 우리 행진을 설명했다. 세만금신공항 반대에 동의하셨다. 멀리서 걷는 깃발과 행렬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된다. 간간이 일대일로 만나는 마을 분들에게도 성의껏 설명을 해 드린다. 민의(民意)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전달되는 게 아니다. 빠르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느리게 걷는 새,사람 행진단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맞추며 우리의 뜻을 전달할 의무가 있다. 그건 시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날 연무성당에서 세 자매님이 오셨다. 과연 걸으실 수 있을까 염려되는 연세로 보이셨지만 묵주기도 헤드셋과 접이식 의자를 소지하실 정도로 신세대 감각이었다. 그 외 보령 가족과 대전에서 공주로 이사한 왜가리 등도 오셨다.

40여 분 후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앞 맨바닥에 기다란 은박지를 깔고 앉았다. 풍성한



과일과 물을 섭취하며 충원월 의료지원팀을 기다렸다. 기다리는 동안 의료진의 치료를 받은 더덕의 벌써 물집 잡힌 발은 앞으로 온 만큼의 세 배를 더 걸어야 했다. 그래도 이날만큼은 박지영, 박일성, 양영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회원들로 행진 내내 든든했다.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앞에서 화장실과 정수기 사용을 하며 잠시 쉬 후 백마강 옆 수북정에 도착했다. 반가운 문규현 신부님과 함께 대전 데모자매 은실과 명이가 차린 근사한 뷔페가 기다리고 있었다. 행진 6일 만에 처음으로 김밥 아닌 점심밥을 먹었다. 얼큰한 돼지 불고기만 빼고는 채식 가능한 식단은 비건, 논 비건 모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풍성한 밥상이었다. 그릇과 수저도 일회용이 아닌 집에서 쓰는 사기 접시와 스테인리스 수저였다. 새,사람행진은 생명 평화 생태적이었다.

밥을 먹은 후 출발지로 가서 차량을 가져왔다. 그간 혼자 해 온 도보순례에서 실제 가장 필요한 과정이 출발지까지 차량을 가지러 되돌아가는 일이었다. 새,사람행진단은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세한 필요를 충족해 주었다.

산들산들 바람 부는 수북정 위에서 가지가지의 사철가 한 자락을 들고 다시 출발, 시민 통행이 마침 없는 백제교 위에서 행진단은 즉석 뮤직비디오를 찍었다. S자로 도는 큰뫼부리도요를 따라 서른 명에서 여섯 명이 더 늘어난 행진단원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추었다.

오른쪽으로 펼쳐진 백제교도 부여의 초록 들판과 그 위에 입 맞추듯 만나는 파란 하늘과 흰 구름. 왜 아름다운 것을 보면 눈물이 날까? 세상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라짐을 알기 때문일까? 지키고 싶을수록 필멸의 운명을 알기 때문일까? 새,사람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그 순간 아름다웠기 때문일까? 그 아름다움이 바로 옆 자연과 한 쌍처럼 잘 어울렸기 때문일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새와 사람 행진단은 부여군청 앞에서 군청의 이온음료 환대를 받으며 화기애애하게 10.3km 구간을 마무리했다. 사흘간 지나간 부여는 경찰과 군청 모두 친절했다. 딸기 말대로 전북지방환경청이 있는 전주시는 부여군을 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 20250820 수요일 통통마디의 날 부여여중~탄천면행정복지센터 13.6km (누적거리 71.8km)

**부여여중 - 정동2교차로 (2km) - 백제보전망대 (2.4km) - 서원마을 버스정류장 (3.8km) - 분강교차로 (2.3km / 점심) - 탄천면행정복지센터 (3.1km)**

'빨강카Palanca'는 스페인어로 지렛대나 받침 썰기를 의미한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뜻하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즉 개인의 희생이나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활동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새,사람행진단에서는 8월 20일 생신인 문정현 신부님 빨랑카 축하법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을 널리 알려달라.**

**둘째 8월 25일 16시 국토교통부 앞 규탄 집회, 8월 31일 15시 진위역 앞 세계연대의 날, 9월 5일 남태령고개 생명상징 행진, 9월 6일 15시 광화문 생명지킴이대회, 9월 8~10일 문정현 신부님 서각 전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에 함께해달라.**

전주에서 보내온 케이크에 불을 붙이고 생신 축하를 하고는 빨랑카 축하법을 알렸다.

신부님의 88세를 축하하고픈 전국의 사람들은 위 축하법을 활용하길 바란다.

민주노총 세종총남지부와 해남의 치자와 탕자 부부 등을 포함한 삼십여 명의 행진단이 출발했다. 부여여중 후문에서 출발할 때 함께 걸으셨던 신부님은 잠시 후 후미 차량에 오르셨다.



지난 6일간 걸어본 바, 나는 다른 행진단원에 비해 하루 4~5km씩은 더 걸었다. 촬영 때문에 앞뒤로 뛰어다니기 때문이었다. 자전거 도로가 쾌적한 부여 구간에서는 내 자전거 뒤퉅을 좀 타볼까 했지만, 바람은 바람으로만 남고 결국 또 맨다리로 행진해야 했다. 전날부터 경찰이 도로를 넘나드는 촬영팀의 안전을 걱정했기에 이날은 아주 암전히 신호 딱딱딱박 지키며 뚜벅뚜벅 걸었다.

자전거 구간 중 몇 안 되는 유인 인증센터가 있는 백제보에서 휴식했다. 신부님 생신 케이크를 조각조각 나눠 먹으며 이온 음료까지 곁들이니 에너지가 충전되었다.

하지만 주행 시속 70km 국도변을 걷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안전요원들이 필요한 이유다. 국도변 자투리 그늘에서 잠시 쉬는데 김연태 단장님 발이 물집으로 테이핑 되어있었다. 그렇게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부여에서 같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공주로 넘어갔다.

분강리 마을회관 옆 나무 그늘에서는 문정현 신부님이 그날의 외침인 통통마디를 나무에 새기고 계셨다. 신부님과 두 손바닥 마주치기를 한 후 김밥을 한 쥘씩 받아 땅바닥에 앉은 행진단원에게 마술쇼가 벌어졌다. 마후라가 농사지는 오이로 만들어진 냉국을 즉석 간 맞추기로 제조하고 완두는 생수병을 칼로 잘라 냉국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컵을 만들어냈다. 평화바람의 즉흥 창작실력은 무인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듯하다.



시원한 냉국과 수박의 위력이었을까. 다시 행진을 시작하자 제주 삼촌이 음악에 맞춰 흥겨운 팔자 스텝을 밟기 시작하셨다. 옆에서 걷던 나와 알알이도 엉키지 않게 따라하다 보니 어느새 도착지인 금빛 탄천에 다다랐다. 며칠간 함께 걷던 삼촌은 그날 밤 비행기로 제주에 돌아가신다고 했다. (곧 또 봐요~)

### 20250821 목요일 흰발농게의 날 탄천면행정복지센터 공주 우금티전적지 15km (누적거리 86.8km)

**탄천면행정복지센터 - 달산 현대오일뱅크주유소 - 달산교 (4.5km) - 이인농협주유소 (2.3km) - 태봉한식뷔페 (5.2km / 점심) - 공주 우금티전적지 (3km)**

전날도 느꼈지만 금빛탄천면은 붉은 현수막으로 폭풍전야였다. 그 아름다운 곳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선다니 주민들이 반대하는 듯했다. 새, 사람행진이 아니었다면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전후 사정을 들어보고 싶었으나, 부디 철회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발했다.

이날은 수라의 외침 '흰발농게의 날'이자 이스라엘 학살로부터 팔레스타인 해방을



기원하는 파업의 날, 'FREE PALESTAIN'. 공군 활주로를 신공항으로 속여 남의 나라에서 전쟁 준비를 하는 미국이나 인종 학살을 일삼는 이스라엘이나 이웃사촌지간이니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행진 처음 얼마간 함께 걸으시는 문정현 신부님의 맨발 샌들과 지팡이는 일평생 겪어오신 풍찬노숙의 의연함을 보여주신다. 신부님 곁에서 카메라를 바꿔 들며 따라오는 공룡 설해는 어깨가 무너지는 무게에도 늘 웃음 짓고 뛰어다니고 있고, 덤프트럭 곁에서 행진단을 인도하는 더덕은 맨 앞에서 단단해 보인다. 행진단 총 진행을 맡은 팀장 딸기는 멈추게 하는 차량에도 깎듯하고, 말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행진단을 독려하는 완두와 김연태 단장님은 존재만으로 든든하다. 앞과 중간 뒤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가지가지와 니키와 청명은 검은머리물떼새 부리 닮은 빨간 경광봉으로 행진단을 지킨다. 함께 경광봉을 들고 안전을 담당하는 토니는 툼툼이 작품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오이는 있는 듯 없는 듯 평화롭고, 실시간으로 사진 업데이트하는 인디는 매일 행진 후에도 새, 사람 잡지 제작에 잠을 잊었다. 참, 큰뿔부리도요의 집사 알알이는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겨울 장갑을 낀 채로 가끔 음악에 맞춰 검은 오른손을 흔든다. 묵묵히 후미 차량을 운전하는 다운은 행진에서 낙오하는 사람들을 수시로 태우며,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내 발걸음에 불평 한마디가 없다.

한 시간 후 다리 밑에서 첫 휴식을 하는데 왜가리 두 마리가 맞은 편 높은 나뭇가지에



©일곱째별

날아앉았다. 새,사람행진 가까이에는 늘 새들이 있다.

오전 열 시, 공주이인파출소에서 화장실과 정수기 사용을 했다. 서천과 부여에 이어 공주까지 오는 동안 경찰과 꽤 가까워졌다. 나는 파출소 정수기에서 나오는 얼음이 신기해서 신이 났는지 경찰에게 우리가 왜 걷는지 열심히 설명했다. 군경이 동족일지라도 수라갯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나. 그들도 경찰 이전에 시민이지 않은가. 노동운동을 해온 가지가지는 며칠 전 부여에서 경찰과 싸우기만 했지 수고했다고 인사 나눈 건 처음이라고 했지만, 족보나 노선 없이 마음 가는 대로 활동하는 나는 상식선에서 크게 적대시할 사람이 별로 없다. 새만금 신공항을 백지화하자고 하는 행진 아닌가. 한 사람에게라도 더 알리는 게 행진단원으로서 할 일이다.

이날 새,사람행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식뷔페에서 모두 함께 점심식사를 했다. 문규현 신부님도 오셨다. 식후 재빨리 자동차를 가져다 도착지에 두고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다.

배가 든든한 행진단은 다시 걸었다. 달궈진 아스팔트 위에는 로드킬 당한 동물들이 있었다. 전날은 파란새가 청명 손수건에 싸여, 이날은 얼룩뱀이 성미산 학교 선생님 종이에 들려 도로가 수풀로 이동되었다. 동물도 외모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마침내 8월 12일 전주에서 출발한 지 열흘 만에 동학농민운동 향전지 우금티에 다다랐다. 큰뒷부리도요를 주차장 근처에 두고 사람만 올라오라는 안내가 들렸다. 그런데 그때 집사 알알이가 오르막에서 가속을 냈다. 모터를 쓰지 않고 페달링으로 올라가기엔 가팔랐다. 그런데 큰뒷부리도요는 동학혁명군 위령탑까지 거뜬히 올라갔다. 멀리 뒤에서 그 광경을 보는데 가슴이 뭉클했다. 1894년 11월 그날, 이인역에서 우금티를 넘어려다 일본군의 총부리에 피에 젖어 쓰러지던 동학농민군들의 함성이 들리는 듯했다. 그건 기개였다. 지치지 않는 기개, 멈추지 않는 의지. 죽음을 불사한 항거.

이어 두 단장님이 현화와 참배를 했고, 우리는 큰뒷부리도요와 더불어 천천히 걸어 올라오시는 문정현 신부님을 기다려 함께 사진을 찍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라갯벌을 지켜낼 겁니다.



©일곱째별



©일곱째별

## 20250822 금요일 삶의 날 우금티전적지~금암삼거리 13km (누적거리 99.8km)

우금티전적지 - 충남역사박물관 (3.2km) - 월송교차로 (3km) - 석장리박물관 (3.5km)  
/ 점심 - 금암삼거리 (3.3km)

아침 여덟 시, 우금티 전적지에서 정선원 박사님으로부터 짧은 동학 강연을 들었다. 이날 금속노조원 충남세종지역본부에서와 보령시민 네 분과 밀양 주민과 말벌 동지와 60+ 기후행동 회원 등이 왔다.

충청남도역사박물관에서 첫 휴식, 사인머스캣과 캠벨포도와 수박 등 과일과 우금티 알림터에서 전날부터 챙겨준 간식으로 영양 보충을 했다. 호텔 같은 화장실은 다음 휴게처인 월송교차로 큰나무 아래에서는 찾을 수 없었다. 그래도 석장리 박물관 앞 정자에 펼쳐진 대전 원도심레츠 왜가리의 연잎밥과 볶음김치와 피클과 왜가리 공주 친구의 아이스크림은 꿀맛이었다.

이날은 흑미와 작두와 청명, 세 흥자매의 격렬한 흥으로 행진 내내 지루할 틈이 없었다. 공주대교를 건너 금강 따라 있는 자전거길에서 행진단은 부여 백제교 위에서처럼 다시 한번 자유를 만끽했다.

그날 종착지인 금암삼거리 가기 직전 다리 아래에서 아이스바가 공급되었다. 정말이지 이런 행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간식과 식사와 쉼이 풍족했다. 다리 밑에서 이십여 명이 돌아가면서 소감을 나누었다. 우리 곁에는 경찰들이 있었다. 서천에서부터 부여 거쳐 공주 지나 세종까지, 어느덧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경찰들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새만금 신공항을 반대했으면 좋겠다.

**법이 큰뿔부리도요를 살릴 수 있을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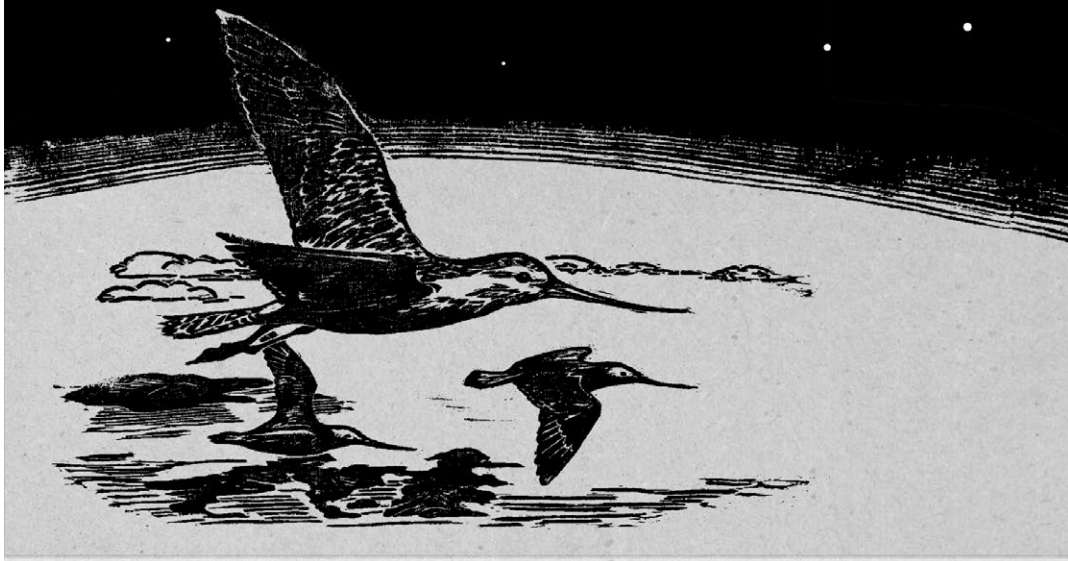
| 주최 | 새,사람행진단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세계연대의 날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로지르는

행진 문화제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 2025.8.31  
일요일 오후3시  
진위역 (1호선) 앞



##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라갯벌을 파괴하고, 군산미군기지 확장이 될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북지방환경청의 협의 통보가 가까워졌습니다. 9월 11일에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립니다.

새와 사람 모두에게 위험한 공항, 군산미군기지의 제2활주로 건설 사업인 새만금신공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북지방환경청은 마땅히 부동의해야하고,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해야합니다.

수라갯벌을 지키기 위해 수라갯벌에서 서울행정법원까지 큰뒷부리도요새와 행진을 시작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행진에 함께해주세요.

| 일시 : 8월 12일(화)부터 9월11일(목)까지

| 행진 경로 : 전북지방환경청-수라갯벌-서천갯벌-부여-공주-국토교통부  
-천안-평택-화성-수원-안양-용산-서울행정법원

[주요 일정에 함께해주세요]

- 8/12(화) 오전 9시30분 전북지방환경청 새,사람행진 출발 기자회견
- 8/13(수) 오전 9시 수라갯벌 행진단 선언
- 8/25(월) 오후4시 국토교통부 앞 새만금신공항 강행 규탄 집회
- 8/31(일) 오후3시 진위역 앞 세계 연대의 날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로지르는 행진과 집회
- 9/5(금) 남태령고개 집회
- 9/6(토) 용산전쟁기념관 앞 생명지킴이대회
- 9/8(월)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과 행진 마무리
- 9/8-10 서울행정법원 앞 문정현 신부의 서각기도
- 9/11(목) 오후 1시 55분 새만금신공항 취소 소송 선고 재판

| 후원계좌 : 농협 351-0390-7008-93 문정현

| 문의 010-2612-2322(오이), 010-6795-1202(덕이)

| 주최 : 새,사람행진단/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이재기

250818

백합의 날



©TONY

©TONY



포롱관

구룡면  
Guryong-myeon

**8.18** 8월 **백합의 날**  
**가로공원-포롱관(10.8km)**

가로공원 - 남촌사거리 - 송정교차로 (점심) - 구룡복합문화센터포롱관

남면  
Nam-myeon

가로공원

## 백합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백합의 날 입니다.

백합은 꽃이자 조개의 이름입니다. 갯벌에 사는 백합은 생합으로도 많이 불리우는데, 빨이 차 있는 다른 조개들과는 달리 속이 흰 백합꽃과 같이 생긴 것이 특징입니다. 크기가 큰 것은 성인 손바닥 만한 것도 관찰되는데 조개의 나이는 대체로 조개의 패각 위 가로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백합의 겉 껍질은 하나도 같은 것이 없이 모두 조금씩 다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문이 있다면 조개들에게는 껍질의 다양한 모양새가 그들의 지문인 것입니다.

백합은 '그레'라고 불리는 도구를 가지고 채취합니다. '그레'는 사다리꼴으로 생긴 기다란 도구로 어민들은 그레를 어깨에 걸고 서서 뒷걸음질 치며 갯벌을 살짝 들춰내면 그 자리에 나온 백합을 채취했습니다. 동진강과 만경강이 만나는 하구 갯벌인 새만금은 백합의 주요 생산지였지만 그 명성은 새만금 간척사업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다가 통장'이라던 어민공동체는 갯벌이 말라가며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갯벌의 다양한 먹이를 먹을 수 있었던 새들 역시 굶어 죽었습니다. 갯벌에 하나의 조개가 사라지면 그와 연결된 모든 연결고리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라갯벌은 해수유통이 계속 된다면 얼마든지 갯벌은 복원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저 바닷물만 들어오면 갯벌은 언제든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군산의 마지막 갯벌 수라를 지키는 것은 백합과 연결된 모든 인간, 비인간 존재들이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법원이 기후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안전의 편에서서 낡은 개발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촉구 1인 시위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

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세,거점

전북지방환경청 앞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천막농성

새만금신공항 백지화를 위해 도요새를 앞세운 새,사람행진이 서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1300일에 가까운 농성을 진행 중이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진행 중이에요.

새,사람행진, 천막농성장 지키기, 서울행정법원앞 1인 시위!  
세,거점에 연대해주세요!

<새만금신공항 부동의 촉구 천막농성> 지킴이 모집

\*신청: [tinyurl.com/23pamlht](http://tinyurl.com/23pamlht)

\*장소: 전북지방환경청 앞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촉구 1인 시위> 참가자 모집

\*신청: [bit.ly/46Jsoj3](http://bit.ly/46Jsoj3)

\*기간: 8월 11일- 9월 11일

\*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참가자 모집

\*신청: [forms.gle/iP8dp8NqCvbYgL7z5](https://forms.gle/iP8dp8NqCvbYgL7z5)

\*일시: 8월 12일(화)-9월 11일(목)



## 큰뒷부리도요 집사의 하루

나는 집사다. 큰뒷부리도요라는 대단한 새의 집사다. 큰뒷부리도요는 조류계의 마라토너라고 불리는데, 인간 마라토너가 40여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달린다면, 큰뒷부리도요는 약 1만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아 뉴질랜드에서 한국 서해안 갯벌로 온다. 수십 년 전에는 흔하던 이들은 새만금 등 각종 간척 및 개발로 인해 서해안 갯벌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사라져갔다. 마라토너에게 보급지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지금은 준멸종위기종이 된 큰뒷부리도요가 그나마 머물어갈 수 있는 수라갯벌이 공항이 아니라 갯벌로 있게 하자고, 큰뒷부리도요를 본딴 큰 큰뒷부리도요를 신고 행진해온지 열흘이 조금 넘었다.

행진에서 나의 하루는 트럭에서 자전거와 큰뿔부리도요를 내려 세발자전거의 뒷바구니에 큰뿔부리도요와 스피커를 싣는 것으로 시작한다(이때 나는 주로 옆에서 보기를 담당한다). 제작자께서 깃털 하나하나에 철사 깃대를 끼우고 채색한 큰뿔부리도요를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이란다. 아름답고 매끈했던 큰뿔부리도요의 깃털은 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빠죽빠죽 뻗쳐가고 있다. 찢어진 깃털을 붙이고, 제멋대로 뻗쳐가는 깃털을 매만져주며 행진을 준비한다. 살피다보면 놀랍게도 새로운 깃털이 나는 것도 볼 수 있다. 누군가 행진을 하다 길에서 주워 붙여주었을까 싶은 갈색 깃털. 이 깃털도 큰뿔부리도요일까?



8시에 오늘의 행진자들이 다 모이면, 서로 소개를 한다. 행진 참석자는 그날그날 다르다. 수라 영화를 보고 오게 된 분, 행진 소식을 보다가 사람이 너무 없는 듯하여 달려온 분, 성당 친구들과 함께 오신 분들,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을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자원활동으로 의료지원을 오신 분들 등등이 전국에서 모인다. 다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그날그날 수라의 외침을 읽는다. 이 외침은 수라갯벌에 사는 생명들의 것으로, 이들을 대변하고자 하는 인간인 행진팀장 딸기가 주경야독하며 써올린다. 지금까지 첫날 큰뿔부리도요에서 시작해 둘째날 저어새, 그리고 가창오리, 검은머리물떼새, 백합, 황새, 통통마디, 흰발농게, 삶의 외침을 인간들이 함께 읽었다. 그리고는 큰뿔부리도요를 따라 행진을 시작하며 구호를 외친다. 수라갯벌 보전하라.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하라. 새, 사람 함께 살자. 새, 사람, 함께 살자.

큰뿔부리도요를 모시는 나는 자전거 페달을 아주 천천히 밟으면서, 중간중간 뒤를 돌아본다. 따라오는 사람들과 너무 붙지도 않게 너무 떨어지지도 않게 걸음에 속도를 맞춘다.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가 힘들겠다 하는데, 사실 힘들지 않다. 일단 이 자전거는 전기자전거다. 그런데 전기를 안 켜도 괜찮은 것이, 평지에서 자전거는 걷기보다 수월하다. 사람들의 걸음에 맞춰 페달을 밟듯 안 밟듯 타고 있노라면 가끔 줄리기가까지 한다. 삼시세끼 푸지게 먹으면서 이렇게 앉아만 있어도 되나 위기감이



든다. 오르막이 나오면 드디어 운동 좀 하겠다 싶어 반가움마저 느껴진다. 해서 페달을 본격적으로 좀 밟아볼라치면 전기 스위치도 안 켜는데 자전거가 지절로 앞으로 간다. 뒤지하고 뒤를 돌아보면 누가 뒤에서 밀고 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운동 좀 해야! 저 운동!" 해도 사람들은 미안해서 그런 거겠거니 개의치 않고 밀어준다. 도요를 함께 모시는 따뜻한 이들 덕분에 나의 신체는 이 행진 동안 도요새가 아니라 키위새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내가 큰뒷부리도요 집사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자전거를 좀 타봤다는 이력 때문이다. 몇 년 전 유라시아 자전거 여행을 했었다. 느렸다. 배를 타고 중국으로 건너가 이스탄불에 가는데, 중간중간 버스나 기차를 탔음에도 1년 반이 걸렸다. 너무도 느린 나의 자전거 속도에, 자전거를 좀 탄다 하는 사람들은 "어유...차라리 걷는 게 낫지 않겠어요?"라며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다. 여행을 하면서는 심지어 더 느리게 가는 방법을 터득했다. 특히 인도에서, 소와 리샤와 사람과 차가 도로를 평등하게 공유하는 자유로움 - 가끔은 이게 지옥인가 싶었던 - 사이에서 나와 자전거는 약 0km/s의 속도로 가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스킬을 익혀야 했다.

그때의 느림보 훈련은 지금의 큰뒷부리도요를 모시기 위함이었던가, 페달을 밟으며 생각한다. 그때와 다른 점은, 그때보다 더 느리다. 그때는 평균 시속 10킬로 정도였다면 지금은 주연령대 5-60대의 걸음에 맞추어 시속 3킬로. 그리고 그때는 혼자였는데 지금은 같이 간다. 내 앞으로는 길잡이 더덕이 가고, 행진팀장 딸기도, 행진 안전과 큰뒷부리도요 제2집사 역을 맡은 가지가지도 왔다갔다하고, 사진과 영상을 찍는 칠성과 오이, 인디와 토니도 스쳐간다. 뒤에서는 이따금 사람들의 흥에 겨운 환호 소리가 들린다. 뒤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다. 내 시선에서는 그 행렬의 끝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간다는 것은 살짝은 포근하고 살짝은 든든한 느낌이다. 큰뒷부리도요 집사이자 대리자로 큰뒷부리도요에 빙의된 자로서, 어쩐지 이들에 둘러싸여 보호받는 느낌도 든다. 법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러니 빨리 가는 것보다, 목적지를 가는 것보다, 이들과 같이



가는게 중요한 여정이다. 앞도 보고 자꾸 옆을 보고 뒤도 본다. 땅바닥도 본다. 같이 있는 이들이 사람뿐만이 아니라서.

금강을 건너면서는 가로등마다 조형물처럼 붙어선 갈매기들을 보았다. 금강변 보도에 나온 큰 집게발을 가진 붉은 게를 보았다. 금강변의 무수한 새들을 보았다. 서천의 논밭을 옆으로 지나면서는, 2m는 떨어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큰 집을 지어놓은 거미들을 보며 감탄했다. 눈에서는, 하늘에는 이따금 백로 같은 새들이 날아올랐다. 바닥에는 매미가 기어가기도 하고, 얼핏 큰 지렁이인가 했던 실뱀이 있기도 했다. 지렁이가, 고양이가, 새가 말라붙어있기도 했다. 보이지 않더라도, 새와 매미는 때론 소리를 통해 알 수 있다. 도로변 나무와 풀들의 존재는 더욱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행진을 시작한지 5일차에는 점심을 금강변에서 먹었는데, 마치 갯벌 같은 강변가에 사람들이 내려가 있어 따라 내려가봤었다. 미꾸라지보다도 작은 물고기가 물이 잠방잠방한 뺨을 튀어가는 게 보인다. 뭐지? 물고기긴! 옆에서 기만국장님이 알려줬다.

"짱뚱어. 저기 더 큰 게 있어요."

손짓을 따라 오른쪽에 시선을 두니 진짜 큰 짱뚱어가 보인다. 뺨을 기어가는 물고기라니, 가끔 점프하는 물고기라니. 폰 카메라로 짱뚱어를 담고 있으려니, 짱뚱어의 배경으로 갯벌에 무수히 난 점점 구멍마다 작은 것들이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다. 확대해보니, 움직이는 것이 게다. 아주 작은 게. 새끼손톱만도 안되는 게들이다. 한 번 게가 보이니, 한순간 모든 게들이 시야를 꽉 채운다. 카메라에서 눈을 떼고 갯벌을 보니, 그 셀 수 없는 구멍구멍마다 게들이 일순간 삭 숨고 어느 순간 또 삭삭 나온다. 나는 게들이 우글대는 한가운데에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들의 공간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강은 게들의 강이고, 짱뚱어의 강이고, 그들에 이끌린 갈매기와 백로,

가마우지, 무수한 새들의 강이고, 내가 보지 못하는 또 수많은 생명들의 강이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수라갯벌은 큰뒷부리도요의, 흰발농게의, 통통마디의 갯벌이고, 우리가 행진하는 길도 그와 같을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무리 인공적인 도시에 살더라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행진을 하면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을 함께 사는 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싶어 문득문득 고개를 기웃거리려본다. 어쩌면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세상 구경을 나온 느낌이다.

한 시간에 한 번꼴로 쉬고, 12시쯤에는 점심을 먹는다.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 철푸덕 앉아 쉰다. 가끔 큰뒷부리도요를 모셔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것을 옆에서 본다. 두발자전거에서 균형을 잡는 데 익숙해진 사람들은 오히려 세발자전거의 지극한 안정성이 생소해 당황한다. 일단 내가 그랬었다. 아니 이 자전거가 왜 이래? 내가 했던 질문을 그대로 하는 이들 옆에서 이제는 세발자전거 프로인 양 훈수를 둔다. "절대 안 넘어집니다. 안심하세요. 그냥 가고싶은 방향으로 핸들만 트세요." 이 세발 전기자전거는 행진단 홍보팀의 쌤이 어머니를 위한 선물로 구입했던 새 거인듯 새 거아닌 그러나 거의 새 거인 자전거로, 쌤은 행진에 온전히 함께 못하는 대신 자전거를 아바타로 보내주었다.

점심을 먹고 한두 구간을 더 가며 신나는 노래에 맞춰 노래 부르고 손이라도 흔들어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한두시가 되어 목적지에 도착한다. 우리 행진의 미덕은 세 시 전에 끝난다는 것이다. 둥글게 모여 소감을 나누고 행진을 마무리하고, 행진 스탭회의를 하고는 큰뒷부리도요와 자전거를 다시 트럭에 싣는다. 이를 나는 또 옆에서 보고, 상당히 지쳐있는 도요의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과 안쓰러워한다. "나한테 이야기하드라고 힘들다고. 한숨을 푹푹 쉬더라고."(가지가지) 우리 도요에 빙의해 이야기한다.

"혼자 있고 싶다.."(나)

"음악 좀 그만 틀어라.."(딸기)



큰뒷부리도요는 예전에는 흔했다. 지금의 새만금이 갯벌이자 바다였을 때, 약 40만 마리의 큰뒷부리도요가 머물렀다고, 새만금 사업으로 바다가 막히기 전에는 흥성대던 포구였던 하계마을서 살던 한 선생님이 알려주었다. 그때는 큰뒷부리도요를 '종쟁이', '되새'라고 불렀고, 고기가 귀할 때는 잡아먹기도 했다. 그렇게 천지뼈까리로 흔했던 큰뒷부리도요는 몇십 년 사이, 가까운 미래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준멸종위기종이 되었다. 비단 큰뒷부리도요만이 아닐 것이다. 현재 지구상의 야생동물들의 총 무게는 인간의 총 무게의 6분의 1도 안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3년 이스라엘 바이츠만 과학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육상포유류는 2,200만 톤, 해양포유류는 4,000만 톤, 이에 비해 인류는 3억 9천만 톤. 가축은 6억 3천만 톤으로 추정된다. 인간에게 길들여지지 않은 것은 멸종되기 쉬운 시대다.

큰뒷부리도요를 한뼘한뼘 만드신 신유아 님은, "언젠가 사라질지 모를 새를 사람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커다란 새가 누군가의 눈에 닿아, 행동과 변화를 이끌어내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도요의 틀을 짜고 천을 씌우고 채색하고 깃털 하나하나를 만들어 붙였다고 했다. "조형물을 만들던 시간은 기후위기를 넘어 생명과 지구를 위한 작은 기도문을 외우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그의 바람이 나는 이미 행진을 통해 천천히 실현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의 종쟁이, 큰뒷부리도요를 구하는 것은, 큰뒷부리도요와 것처럼 삶의 터전을 무력하게 빼앗기는 생명들을 위한 것일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나를 구하는 것이겠다. 행진단장 완두의 말이 가끔 생각난다. 도요를 생각한다지만, 사실 인간의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겠냐고. 그렇게 보면 이건 영웅의 길이라기보다는 성찰과 참회의 길이겠다. 성찰과 참회라는 진지한 단어를 앞세운 것치고는, 이상하게 즐거운 길이겠다.







250819

황제의 날



©TONY



©TONY



**8.19 화 황새의 날**  
**포롱관-부여군청(10.3km)**

포롱관 - 부여군농업기술센터 - 부여군장애인종합복지관 -  
 수북정 (점심) - 부여군청

포롱관

구룡면  
 Guryong-myeon

부여군청

부여군  
 Buyeo

## 황새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황새의 날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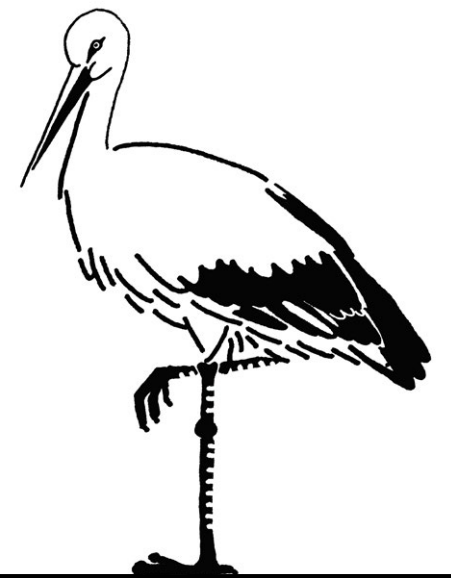
새들은 우리와 아주 멀리에 있습니다. 여간해서는 가까이에서 서로 눈을  
맞추고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볼 수 있는 참새나, 박새,  
찌르레기, 까치들은 그나마 친숙한 새들입니다. 새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나  
싶지만 황새는 110센치 내외의 큰 조류입니다. 이렇게 큰 새들이 가뿐하게  
하늘을 날아오르는 비결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랜 진화 과정 속에서  
새들의 뼈 속은 단단하지만 거의 비어 있는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벼운게 날기에 더 적합하니까요.

황새들은 수라갯벌에서도 어렵지 않게 목격이 됩니다. 20센치 내외의  
물떼새와 황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황새의 큰 키가 더욱 도드라져  
보입니다. 큰 키 만큼이나 거대한 날개로 사뿐히 날아가는 모습은  
하늘위에서도 장관입니다.

우리 주변에 살던 황새는 한국 전쟁과 환경오염으로 1994년 한국에서 멸종  
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인간 뿐 아니라 많은 비인간 존재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과 난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는 황새를 멸종에 이르게 했습니다. 현재는 인공부화 후 방생해 개체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으로 인해 사라졌던 황새를 인간들은 다시 살려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황새를 살리려는 노력은  
무색해 질 것입니다. 이제 막 개체수를 회복하기 시작한 황새들이 수라갯벌에  
웁니다. 미군기지 바로 옆을 황새들이 거닙니다. 전쟁과 전쟁을 준비하는  
인간으로 인해 황새의 두번째 멸종이 발생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들이  
수라갯벌을 자신들의 안식처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황새 만큼이나 수라갯벌도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법원이 기후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안전의 편에서서 낡은 개발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랍니다.



## 내 인생 처음 맨발의 친구를 만난 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날 아스팔트 위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친구가 나에게 들려줬던 꿈이야기가 생각났어. 고등학교 졸업식날 친구가 다가와 말했지. 내가 이상한 꿈을 꿔. 수능시험을 보는 꿈이었는데 너와 내가 같은 반에서 시험을 봤거든.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른 아이들은 양말에 신발을 잘 신고 있는데 너만 맨발이었다는거야.

그 친구의 꿈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나는 종종 그 꿈을 생각해 보곤 했지. 모든 이들이 신었던 양말과 신발을 어째서 나만 안 신고 있었을까. 부여에서 공주로 향하는 그 길이 더운 나머지 내가 있는 곳이 20년 전 그날의 제주강정평화행진인 것만 같았어. 내 인생 처음 맨발의 친구들을 만난 날. 제주의 새파란 바다와 하늘이 하나로 합쳐진 날. 동진과 서진에서 만난 친구들이 제주시에서 지는 황금노을을 바라보며 풍물을 치던 날.

매번 전주천에서 다양한 새들을 만나. 작년에는 저어새가 전주천 어귀까지 찾아왔지. 먹이가 풍부한 곳을 찾아서 흘러온거야. 새만금과 만경강을 건너 전주천까지. 이 물들은 구역이 나뉘어지지 않은 채 서로에게 섞이고 흘러흘러 바다를 만나기를 원하니까. 새만금에서 모래를 아무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퍼나른다고 땅이 되는 것은 아닐 텐데. 사람들은 수십년간 금방 허물어지는 두꺼비집을 짓고 있어.

뉴질랜드 마오리부족 황아누이 쿠아카 부족이 물었어. 과연 너네 땅에는 큰뒷부리도요새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 앞에 제일 앞장서서 가고있는 큰뒷부리도요새가 날개를 쓰지 않은 채 마치 사람처럼 서식지를 지키러 가고 있잖아.

태곳적에는 인간도 자신만의 언어를 쓰지 않고 모든 것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지. 황아누이에게 인간과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한 뉴질랜드 마오리부족들이 가지고 있는 일말의 능력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보지만 나는 새의 언어를 할 수 없어서 그 옆에 서기로 했어. 많은 친구들이 그 곁에 서서 큰뒷부리도요새의 언어를 번역해줄 사람을 찾아나섰어.

마오리 부족 원주민들이 당신들의 땅에서 절대 느끼지 못했던 아스팔트의 뜨거움을 맨발로 느끼며 여전히 근심어린 목소리로 나에게 되물었어. 네 나라의 법에는 새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모종의 단어가 있을까? 바뀌낼 한사람만 찾아내면 돼. 그 한사람만.

- 김선경 (전주 토닥토닥책방)

## 도요새

바다를 가로막아 무엇에 쓰러나  
옛날부터 바다가 그대로 논밭인데  
갯벌을 모두 메워 무엇을 만드나  
옛날부터 갯벌이 그대로 공장인데

도요도요 도요새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아 천금만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다여 갯벌이여  
아~ 생명의 터전 우리가 우리가 지킨다

동진강 만경강은 흘러서 어디로 김제들판 적시며 그대로 젖줄인데  
백설이 내려앉은 소금은 어디서  
옥구염전 알알이 그대로 보석인데

도요도요 도요새 다시 볼 수 있을까  
아아 천금만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다여 갯벌이여  
아~ 생명의 터전 우리가 우리가 지킨다

## 난 바다야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시간들  
방조제 너머의 너는 진정 나인지  
이 안에 갇혀버린 나는 진정 바다인지

다시 갯벌로 돌이키지 못하는 세월들  
더 이상 너에게 내 숨결이 닿을 수 없고  
여리고 여리던 속살도 딱딱히 굳어버렸어

난 그렇게 또 숨이 막혀 아프기 시작했어  
하지만 씹어가면서도 난 포기하지 않았지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굳은살에 새살 돋는 난 살아있는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난 바다야  
죽음마저 이겨낸 난 자유로운 바다야  
날 바다로 날 바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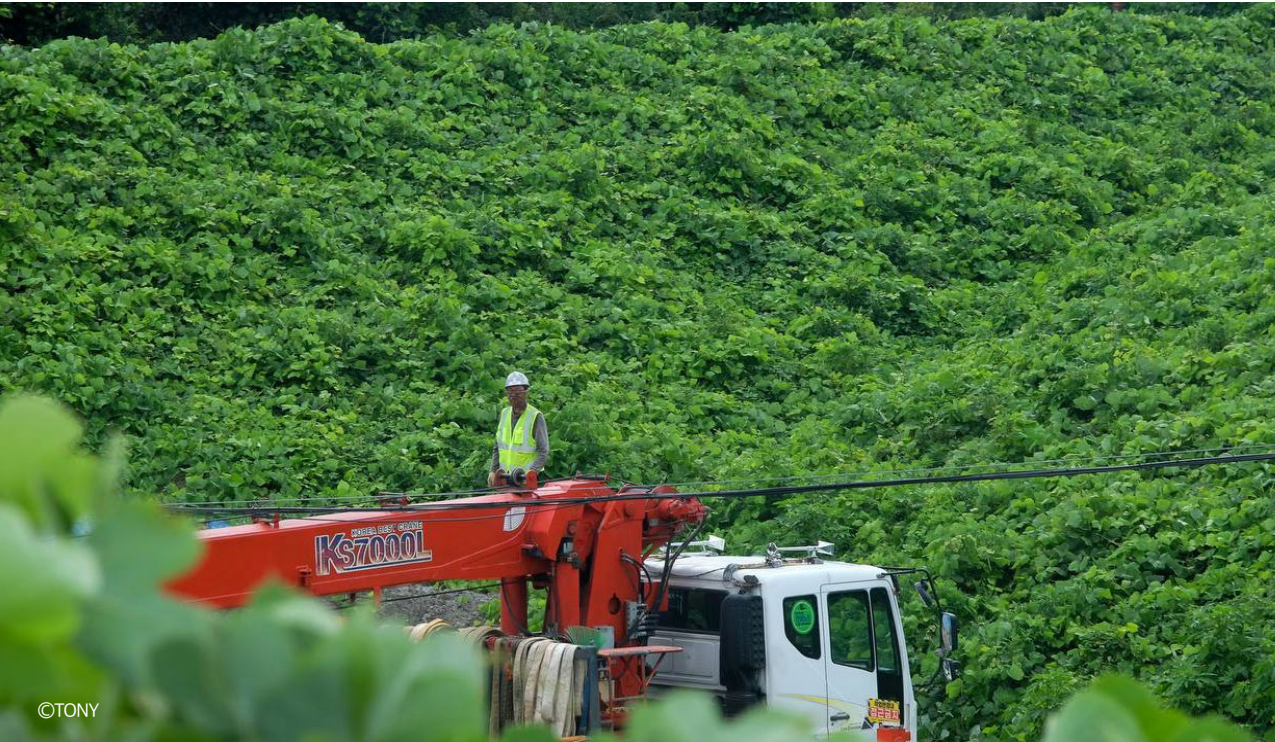




250820

통통마디의 날

©TONY



©TONY



©TONY



탄천면  
Tancheon-myeon

탄천면 행정복지센터

**8.20 수** 통통마디의 날  
부여여중-탄천면 행정복지센터(13.6km)

부여여중

부여여중 - 정동2교차로 - 백제보전대 - 서원마을 버스정류장 - 분강교차로 (점심) - 탄천면 행정복지센터

부여군  
Buyeo

## 통통마디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통통마디의 날 입니다.

가을이 되면 수라갯벌과 새만금은 짙은 색으로 변합니다. 통통마디,  
칠면초와 같은 염생식물들이 가을을 맞아 낙엽지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들지 않아 비쩍 마른 갯벌이라 할 지라도 봄이면 염생식물이 자라고 가을이면  
붉게 물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모습은 어떨지 몰라도 아직 속은 여전히  
갯벌입니다.

통통마디는 한해살이로 이름처럼 줄기 마디마디가 통통하게 튀어 나와  
있는데 이런 모습은 바닷물로부터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통통마디를 포함한 염생식물은 세포에 많은 소금기가 있어 삼투압이 높아  
염기가 높은 토양에서도 물을 빨아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환경이  
무엇이든 생명은 언제나 살길을 만들어 냅니다.

갯벌에 납작 엎드려 있지만 통통마디는 갯벌 생명들의 울타리가 되어 줍니다.  
어류, 조류, 저서생물들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은신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해냅니다. 통통마디는 살아서는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 저장하고 죽어서는 자신의 세포에 저장된 탄소와 함께 갯벌에  
묻혀 탄소를 가뒀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취소소송 재판중에 통통마디와 염생식물들이 재판정에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수라는 갯벌인가?라는 물음에 우리가 내민 증거가  
통통마디였습니다. 염생식물이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염분이 있는  
갯벌로써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판관들은 수라갯벌을 직접 와서  
본적이 있을까요? 통통마디가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까요?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는 큰뒷부리도요와 함께 통통마디와 함께 수라갯벌의 증인으로서  
<새,사람행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행정법원이 미군기지  
확장과 조류충돌사고의 위험을 앓고 있는 새만금 신공항 사업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리길 소망합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의 취소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기후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안전의 편에서서 개발주의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 정의로운 판결의 시초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 새깃 새김

<새,사람행진> 길 위에서 서각을 새기는  
문정현 신부님 생일을 빨랑카\*로 축하해 주세요

아래의 액션이 문정현 신부님  
빨랑카 생일선물입니다

1.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을 널리 알려 주세요

직접 참여 / 언론보도 / SNS해시태그 및 공유 / 응원메시지 전달 등

2. 새만금신공항 취소 판결을 바라는  
<새,사람행진> 광장을 함께 열어 주세요

- 8월 25일 / 국토교통부 규탄 집회
- 8월 31일 / 진위역 앞 세계연대의 날 행사
- 9월 5일 / 남태령고개 생명상징행진
- 9월 6일 / 생명지킴이대회
- 9월 8일 ~ 10일 / 문정현 신부님 서각전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선고



\*빨랑카 스페인어로 지렛대나 받침 췌기를 의미합니다. 가톨릭 신앙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뜻하며, 희생과 헌신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개인의 희생이나 헌신을 통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활동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설혜



길 위의 서각기도  
평화바람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VWDZ6NVhGbw?si=1YUBNF2WBeVjIM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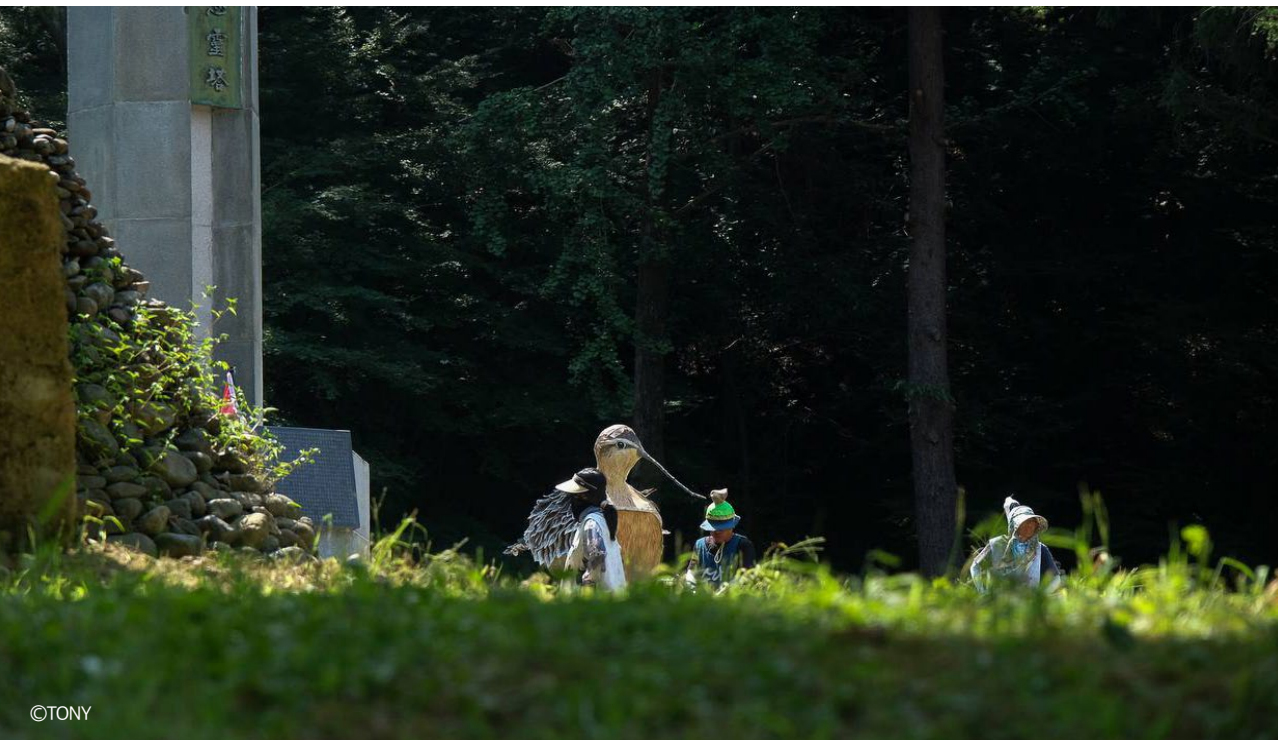
제작\_미디어로행동하라 영상팀





250821

흰발농계의 날



## 흰발농게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흰발농게의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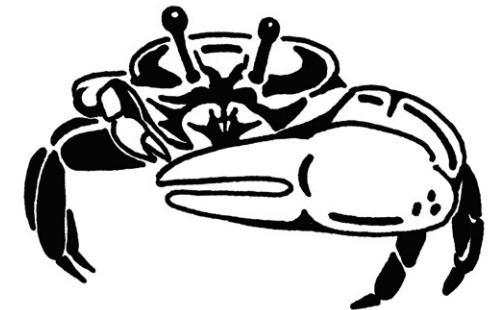
갯벌에는 다양한 갑각류가 살아가는데 그중 흰발농게는 수라갯벌을 끝내  
지켜낸 ‘게’ 중 하나입니다. 수컷의 한쪽 집게발이 유난히도 크고 희다고 해서  
흰발농게로 불립니다.

수라갯벌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많은 조개들이 하얀 무덤을 만들며 죽어 갈 때  
갯벌 어딘가 굴을 파고 들어간 흰발농게는 2021년 집단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생명의 흔적을 찾아낸 것은 시민들이었습니다.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20여년 넘게 수라갯벌과 새만금갯벌을 드나들며 매립공사가 진행되는  
곳에서도 바닷물이 들지 않는 곳에서도 해수유통이 부분적으로나마 확대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생명의 발자취를 찾아 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금티를 넘어갑니다. 그 옛날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동학농민혁명군이 어찌면 살아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알고도 해방세상을 향해  
걸어나갔던 길입니다. 흰 저고리와 바지를 고쳐 입고 두려움에 맞서 뜻을  
세웠던 그 옛 사람들의 마음은 어찌면 바닷물을 애타게 기다리며 생과 사의  
갈림길 앞에 섰던 흰발농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애타는 마음으로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세계를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무참한 공격에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가자를 위한 파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새  
그리고 사람과 함께하는 이 행진에서 우리는 전쟁으로 파괴되는 팔레스타인을  
기억하고 전쟁기지 확장으로 이어질 새만금 신공항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굳은 마음을 다집니다.

우리는 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죽어간 흰발농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끝끝내 살아남아 수라갯벌을 지킨 흰발농게를 기억합니다. 참혹한 권력자들  
앞에 주눅들지 않고 생명의 존엄을 외쳐온 역사 속 그들과 오늘의 우리 그리고  
흰발농게를 생각합니다.



## 새만금, 아니 억만금의 공항이 들어선대도

내가 최근에야 배운 용어가 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다. 유네스코가 '세계유산'을 지정할 때 쓰는 말이다. 유네스코의 운영지침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실감이 난다. 여기서 '탁월하다'는 것은 '독보적'이라는 뜻이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중요성을 가리킨다. 또 '보편적'이라는 것은 해당 유산이 특정 국가나 지역이 아니라 전체 인류에게, 그것도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니 길게 말할 것이 없다. "이 유산을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국제사회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도대체 세상 어떤 것에 이런 가치가 부여될까. 유네스코는 전남 신안에서 충남 서천으로 이어진 갯벌이 그렇다고 했다. 갯벌은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까지 초장거리 이동을 하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라고 한다. 이를테면 큰뒷부리도요 같은 새가 그렇다. 이들은 1만km가 넘는 거리를 일주일 가까이 쉬지 않고 날아서 간신히 여기에 도착한다. 한 생태학자의 말을 옮기면 이렇다. "비행 동안 지방과 근육 속의 에너지를 모두 소진해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 도착합니다. 날갯죽지를 축 늘어뜨린 채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지쳐 있습니다."

여기는 이런 곳이다. 지구의 반을 날아온 수십만의 새들이 뼈와 가죽만 남은 몸을 잠시 의탁하는 곳.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곳의 가치는 탁월하고 보편적이다. 사실은 가치라는 말조차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불품없이 느껴질 정도다. 영생하는 하늘의 천사들이 아니라 멸종을 앞둔 자연의 천사들 앞이어서 더욱더 그렇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자연유산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는 지침은 "그대로 온전하게"이다. 인간의 손발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면 만금의 가치가 쏟아진다고 믿는, 아니 그렇게 믿게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다. 올해 착공이 예정된 새만금 신공항 이야기다.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무려 27종의 국제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곳이며,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에서 겨우 7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불과 몇해 전 정부는 자연유산 등재를 신청하면서 이 일대가 철새와 관련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우리는 지난겨울 '버드 스트라이크'로 끔찍한 항공기 참사를 겪었다. 어느 전문가의 말처럼 그야말로 모든 게 "당혹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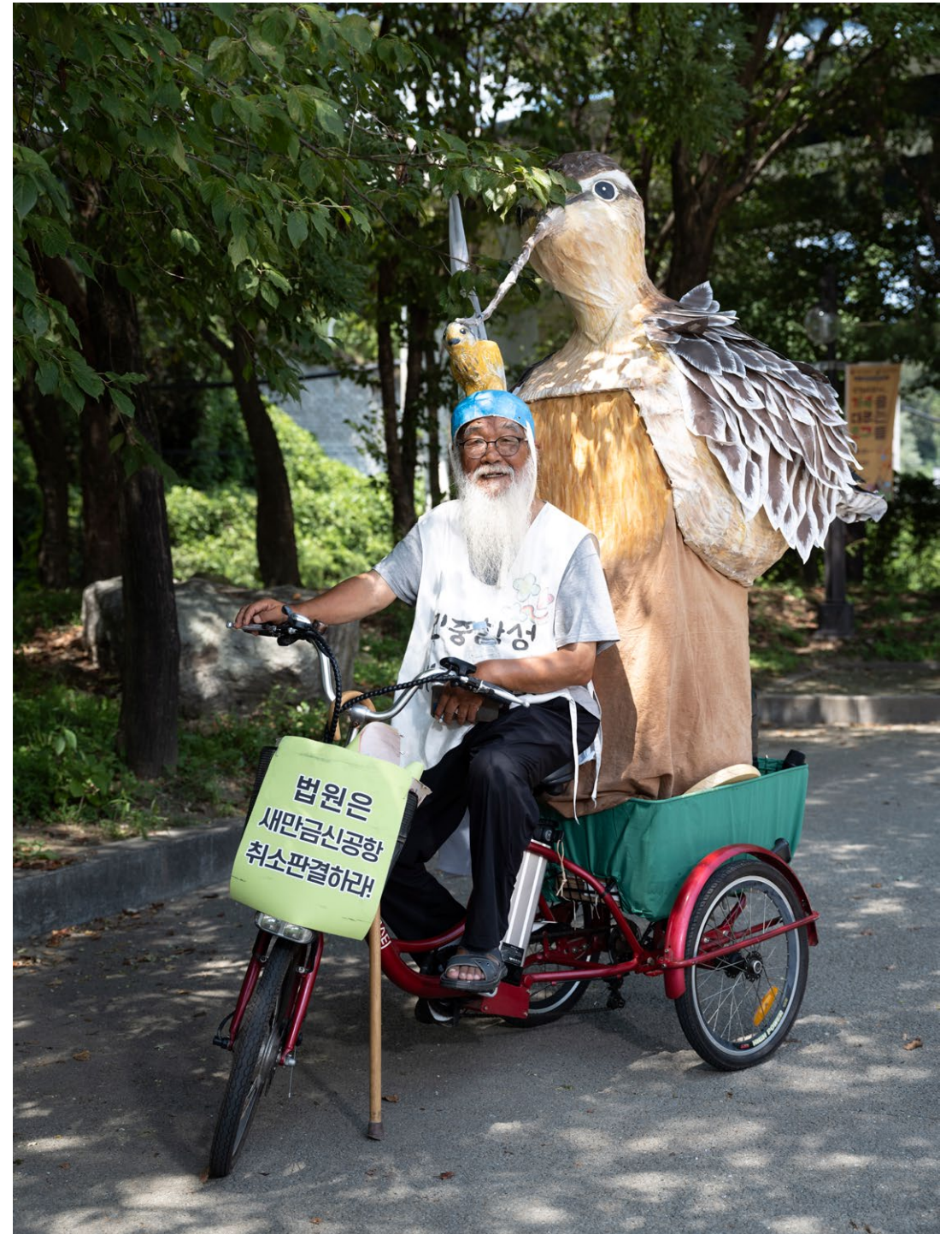
내 생각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여기가 '새만금'이어서 그렇다. 새만금은 이런 곳이다. 개발의 이유를 바꿀지언정 개발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 40년 전에는 농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쌀이 넘쳐나던 때), 20년 전에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했고(인근 산업단지가 텅 비어 있던 때), 이제는 친환경적 사업의 유치를 위해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기후위기 시대에 탄소흡수원인 갯벌을 매립하면서 탄소배출원인 비행기라니). 글로벌한 부끄러움을 안겨준 재작년의 잼버리 대회도 애초에는 신공항 건설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신공항은 착공도 하지 않았지만 환상 속에서는 잼버리 대회 참석자들을 이미 실어나르고 있었던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는 새만금 신공항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니, 홍보 직원도 믿지 못할 말을 천연덕스럽게 쓴다. 얼마 전에는 지역 경제단체들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제는 올림픽이다!). 모순에 모순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더하면서 건설사들이 이익을 뽑고, 정치인들이 표를 챙기고, 공무원들이 하다못해 월급이라도 받은 곳이 새만금이다. 새로 만금을 얻을 수 있는 곳, 만금을 벌 수 있다는 욕망의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곳, 이제는 그 불이 꺼질까 봐 불안해서 더욱 부채질을 해대는 곳이 새만금이다.

이제는 이 불을 꺼야 한다. 수십년간 타오른 환상의 불 때문에 수많은 실제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 모두가 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음달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부디 세상에는 새만금이 아니라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선고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이 선고 일정에 맞추어 지금 수라갯벌에서 서울까지 걷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 ‘새, 사람 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새와 사람이 함께 걷는 길, ‘새’ 다음에 ‘만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을 둔 이 행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 공주우금티까지 15km 행진... "새와 사람, 함께 살자"

21일은 '흰발농계의 날'이자 팔레스타인 가자를 위한 '과업의 날'이기도 했다. 행진단은 수라갯벌에서 살아남은 흰발농계와 공주우금티를 향하던 동학농민혁명의 마음으로 지금도 진행 중인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학살을 규탄하고 행진을 시작했다.

"Free Free Palestain!  
From the river to the sea!  
새, 사람 함께 살자!"

오늘은 탄천면행정복지센터에서 공주우금티 전적지까지 총 15km를 행진했다.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요새를 앞세운 행진은 특유의 흥을 돋우며 즐겁게 행진했다.

안성에서 아이와 함께 참여한 권지혜님은 "새만금신공항은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우리나라에 불필요한 공항도 많고 더 생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갯벌의 가치도 굉장히 크고 미래세대를 위해서 말로만 환경, 환경 하지 말고 제대로 정치를 하면 좋겠어요"라며 정치적 개발논리를 안타까워했다.

또 행진단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진으로 참여한 박지영님은 "오늘 너무 덥고 습하고 힘들었잖아요. 혼자 걸었으면 못 걸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유명한 속담을 아시지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오늘 함께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모두 발, 관절 관리 잘하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며 행진단을 응원했다.

대전에서 온 한연금님은 "저도 수라갯벌 가본 적이 있어요. 아름답고 여러 식물과 바다의 동물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 왔어요. 그 아름다운 곳을 매립해 공항을 짓겠다고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혼자서는 못하지만 같이 소리를 높이면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동참했습니다. 덥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훨씬 좋았어요"라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전주에서 온 박민주씨는 "우금티를 올라오면서 몽클했어요. 울분이 일어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비석을 보니까 고개를 넘었어요. 이 시대의 동학 동지들은 성공할 것이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이곳에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그 염원을 우리가 담아서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힘냅시다!"라며 우금티에서 받은 영감을 나눠 모두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의 15km 긴 행진은 공주우금티 전적지에서 끝났다. 행진단은 동학혁명전적비 앞에서 모여 헌화와 노래로 그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진 후 소감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 조혜진(새,사람행진단 홍보팀)





©이재각

250822

삶의 날



## 삶의 날

우리는 전북지방환경청을 출발해 서울까지 향하는 발걸음 앞에 수라의 못  
생명을 기억하고 그들이 끝내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수라의  
외침>을 전합니다. 오늘은 삶의 날입니다.

삶은 한국의 고양이과 동물 중 몸집이 가장 작습니다. 고양이와 다른 점은 귀  
뒤에 흰색 반점 같은 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은 고양이과 포식자인  
호랑이, 표범, 스라소니에도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고양이처럼 발톱을  
숨기고 다녀서 갯벌에는 고양이 발자국처럼 발톱이 없는 형태로 찍히지만  
고양이와 다른 점은 발가락 사이의 간격이 넓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갯벌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고양이인지, 삶인지 알아보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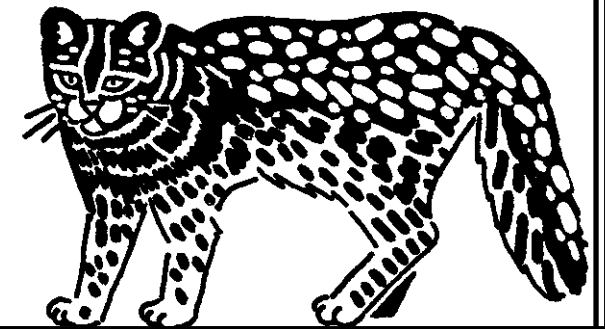
삶은 논밭과 강을 끼고 있는 저지대의 풀밭에 사는데 설치류와 작은 새를  
먹습니다. 수영도 잘해서 물고기를 잡아 먹기도 합니다. 1960~70년대에 벌어진  
취잡기 운동시기 쥐약을 먹은 쥐를 삶이 잡아 먹게 되면서 많은 개체수가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라갯벌에서 삶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지만 만약 만난다면 고양이와 헛갈릴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작은 호랑이에 가까운 용모는 보자마자 삶이다! 하고  
알아차리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갯벌에는 조개도, 새도, 게도 살지만 삶과

같은 육상포유류도 살고 있습니다. 갯벌은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서 그 모두를  
연결하고 아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손가락 하나로 세상의 모든 소식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연결되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없이 고립되어 연결성, 연대성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사회는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을까요? 수라 갯벌이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듯 우리 사회에도 갯벌과 같은 연결지점이, 연대지점이 필요한것은  
아닐까요.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육지와 바다를 연결하는 수라갯벌이  
주는 지혜는 무엇일지 함께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이 없던 순간을 보았는가

©박홍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2021, 100X200, 목판화

# 동학교도들은 지나가는 길에 풀 한 포기 밟지 않았고, 벌레 한 마리 죽이지 않았다

정선원(사)동학농민전쟁우금티기념사업회 이사)

폭염의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행진단에 함께 하고 있어, 세상의 희망을 느낍니다.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앞에서 있는 저도 세상의 희망과 잠시라도 함께하게 되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만금사업이 1991년에 시작, 지금도 어마어마한 세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생명을 죽이는 건설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공항까지 건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소위 민주정부가 들어서도 새만금의 건설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연을 착취하고 파괴하는 개발과 성장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지요. 자연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는 문명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평택 대추리에서, 강정마을에서, 분단선을 넘어오신 문정현, 문규현 신부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 분 신부님을 보면서 시대의 사명에 앞장서고, 민중의 눈물에 함께하는 우리 시대의 예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해방자, 개혁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새만금신공항백지화를 위해 도보 행진하면서 우금티를 찾아오신 것은 여러분이 시대의 사명에 앞장서고, 민중의 눈물에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진단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도 동학정신을 공주시민들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동학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고민해 왔습니다.



역사적인 장소, 우금티에 오신 여러분께 몇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금치' 지명에 관한 것입니다. 공주 일대에서는 능티, 마티, 늘티 등 고개 이름에 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금치는 일본군과 관군 등 동학농민군 진압군이 진압 기록에 남긴 한자식 지명 표현입니다. 1993년 우금티기념사업회(공주 동학기념사업단체)가 창립될 때부터 우금티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우금티가 공식 지명이 되어 교과서에 표기되도록 우금티기념사업회도 명칭변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공주사람들이 예로부터 불러왔던 우리말 지명인 '우금티'로 불러 주셨으면 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시기 우금티전투 등 공주전투는 22일간 9차례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우금티전투도 그 중 하나이고, 공주전투에서 가장 큰 전투이어서 공주로 내려왔던 일본군 대다수가 우금티전투에 동원되었습니다. 그런데 우금티전투가 벌어질 때, 동시에 모두 4군데(우금티, 송장배미, 오실, 효포)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음력 11월 9일). 그래서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의 최고 책임자 전봉준 장군에게 '우금티에 동학농민군을 밀어 넣어 무모한 희생을 벌였다'라는 평가는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동학농민군의 새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의지와 일본군의 식민지 야욕은 화승총과 신식소총의 싸움이 되어 공주 땅은 동학농민군 시신으로 넘쳐났습니다. 우금티전투의 동학농민군의 진지 봉정동 마을은 3년을 두고 동학농민군 시신을 치웠습니다. 고마나루에서 공주 시내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송장배미(즉 송장논)가 생겼고, 효포 마을의 냇가는 혈흔천이 되었습니다. 오실 마을의 보아티 들판과 보아티 고개는 '동학군이 아이고 팔이야, 아이고 다리야 하고 죽은 자리'라고 이야기되어 동네 사람들은 오랫동안 밤에 돌아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홍규, 우금티, 2012, 한지에 채색



©박홍규, 애우금티, 2014, 종이에 채색

동학농민군과 일본군의 전투는 화승총과 신식소총의 싸움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기관총과 신식 대포를 신식군대의 전투인 청일전쟁에서 사용했고, 동학농민군 진압에서는 신식소총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화승총과 신식소총의 싸움은 50미터 대 400미터 사정거리라고 하는 압도적인 화력 차이가 있었고, 보통 단 한 차례로 전투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금티전투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40분(3시간 40분)까지, 40~50차례 동학농민군의 연속 공격이 있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처럼 뻗뻗이’ 올라갔고, 200~300명 단위로 공격하였습니다. ‘주먹만 내질러도, 무르팍으로 내밀어도 나갈 수 있었는데’라고 하여, 거의 코앞까지 근접전을 한 것으로 봅니다. 송장배미에서도 ‘육박혈전 10여 차례’를 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군의 공주전투 모습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우뚝 선 동학농민군을 볼 수 있습니다. 양반 기득권 세력이 아닌 평민·천민이 중심이 된 동학농민군이 정치의 주체로 나선 것입니다. 보국안민의 주체로서, 침략자 외세를 몰아내고 부패한 조선 정치를 바로잡는 주인으로 선 것입니다. 전라도 집강소 통치를 통해 민중 자치 역량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시천주, 사인여천의 동학사상은 동학농민군의 주인 의식, 평등사상(신분차별 철폐)을 각성시켰습니다.

공주전투에 모인 동학농민군 대열은 비교적 준비되고, 훈련된 조직이었습니다. 남접(전라도 동학농민군)은 전주감영을 차지하기도 했고, 동학농민군의 집강소 통치를 경험하면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쟁 준비를 하였습니다. 북접(동학교단 동학농민군)은 1860년 이후 30여 년의 포교, 6개월간 교조신원운동이 있었습니다. 청산 기포(9월 18일 봉기) 이후, 무기와 식량을 본격적으로 준비하였고, 신식소총도 일부 준비하였습니다. 공주에서도 이유상 동학농민군(유생 동학농민군 대열), 장준환 세력, 정산접주 김기창 동학농민군이 참여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 대열은 공동체 세상이었습니다. 동학에 입도하면 굶어 죽는  
 이가 없도록 서로 먹여 주고, 같이 절하며 인간 대접해 주는 공동체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공동체 세상은 침략자·약탈자 일본군과의 공주전투에서 절대로  
 굴복할 수 없어서, 죽음을 무릅쓴 장렬한 전투가 되게 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도덕의 군대이고, 생명 존중의 군대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4개조  
 규칙, 12개조 규칙이 확인됩니다(‘동학농민군은 어쩔 수 없이 싸우더라도 상대의  
 목숨을 해치지 말라.’ ‘행군 대열은 사람과 가축을 절대로 해치지 말라.’ 등).  
 해월 최시형 선생은 삼경사상에서 ‘물건을 공경하는 것이 도덕의 최고 경지’라고  
 이야기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철학을 제시하였습니다. ‘동학교도들은

지나가는 길에 풀 한 포기 밟지 않았고, 벌레 한 마리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부안 유생 기행현 『홍재일기』). 동학농민군은 공주의 효포와 정안에서도  
 그동안 선행을 베풀어 왔던 양반 지주에게는 오히려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학농민군의 도덕과 생명 존중의 전통은 촛불혁명, 빛의 혁명으로 계승되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깊이를 더욱 튼튼하게 하였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생명  
 존중의 전통은 세계적인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그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를 보더라도 무제한 개발과 성장의 한계는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수라갯벌의 못생명을 살리고, 큰뒷부리도요와 함께하는 세상을  
 지향하는 행진단 여러분의 염원과 함께하겠습니다.



## 15 Million Steps



We have been walking now for twelve days. Every day we walk an average of ten to fifteen kilometers. My step tracker tells me that on the average day of the march I will take approximately 20,000 steps. With each step forward we pass different cities and provinces which are clearly demarcated by traffic signs and the changing of police escorts. Walking with us is the Bar-Tailed Godwit, known for its ability to travel extremely long distances during its migration. We learned through the march that the Bar-Tailed Godwit will stop once in Sura from its travel from New Zealand to Alaska. Speaking of steps, did you know that if a person were to walk the distance between New Zealand and Alaska that it would take approximately 15 million steps? I do the math to see how many steps we would take as we march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n Seoul. Based on approximations, if thirty individuals were to march from the Jeonju Regional Office of Environment to the administrative court in Seoul the total amount of steps we would collectively take would be approximately 12 million steps.

While we are constantly aware of where we walk, through traffic signs, banners and storefronts that often tell you the region, I wonder if the Bar-Tailed Godwit can notice when it arrives at a new place. How can it know when it has come to Sura? Does it notice the rice fields on the way? Or the ancient Korean architecture in the cities like Gongju or Buyeo? In other

words what sort of landscapes does a Bar-Tailed Godwit lay witness to? I wonder how much of the borders we emphasize go recognized by our more-than human companions - from borders between nation-states, provinces, cities, towns, and all the rest. While we march in solidarity with the Bar-Tailed Godwit for whom such boundaries may seem nonexistent, we do so by navigating such boundaries that matter so dearly to the human. As we walk the countryside from town to town, there is always a question in the back of my mind as we enter new boundaries. How will the townspeople there accept our march? Will they have heard of it? Will they appreciate the reasons why we are marching to Seoul?

These thoughts are a reminder that with each step that we take, we create new relationships to the places around us. As we may recognize the landscape by this process of bordering, walking with the Bar-Tailed Godwit can remind us that recognizing a border, a landscape, or a place is a practice rather than mere representation. I do not walk for a nation, or a region, or a specific province. Rather, our slow march challenges this distinction by relying on the Bar-Tailed Godwit and our own two feet. What kind of borders are made in solidarity with our non-human comrades? And what geographies are recalled by the feeling of my feet as it touches the asphal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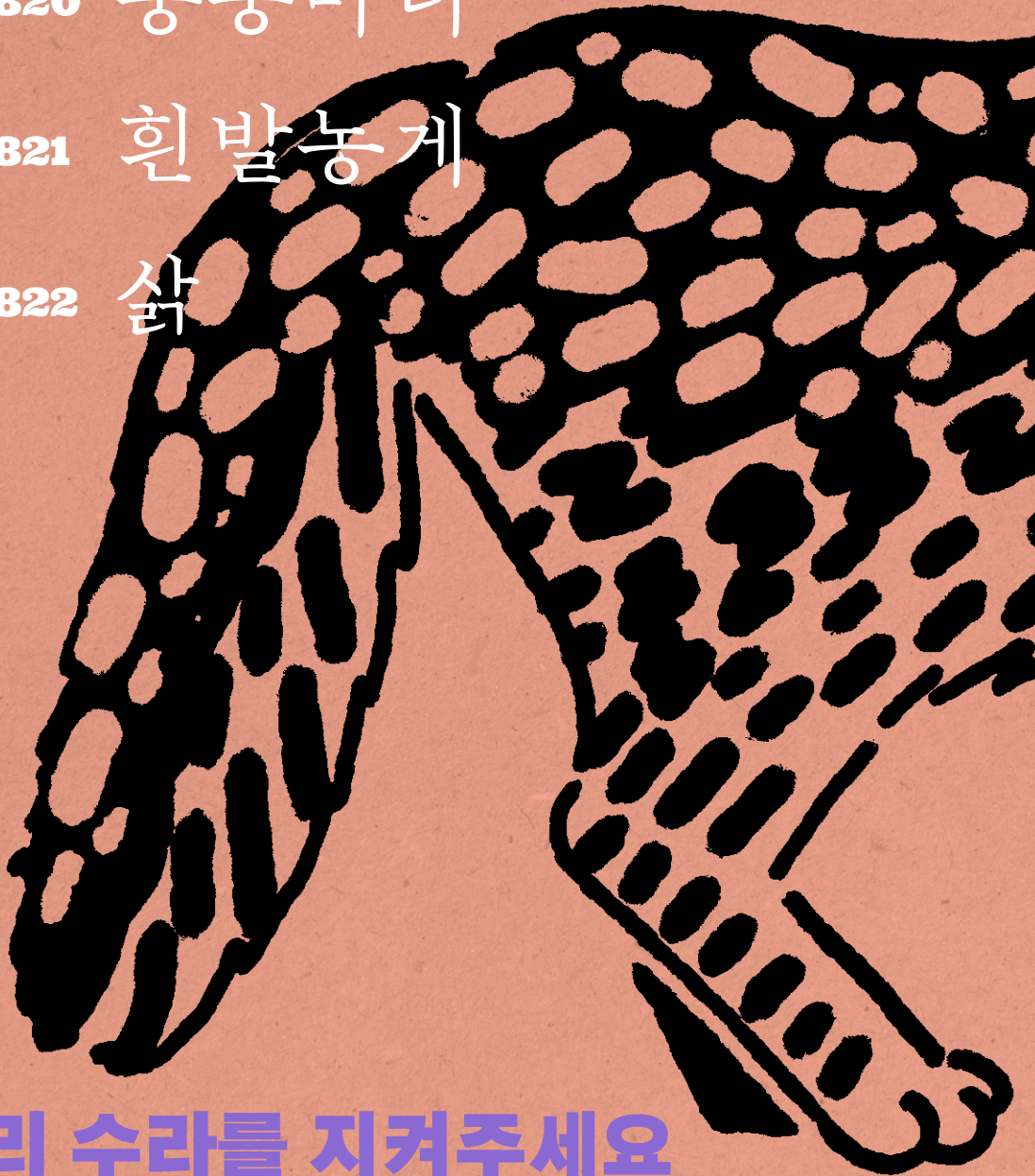
250818 백합

250819 황새

250820 통통마디

250821 흰발농게

250822 삶



우리 수라를 지켜주세요